

보도시점 2026. 5. 27.(수) 11:00 배포 2026. 5. 27.(목) 09:00
5. 28.(목) 조간

‘비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 시점부터 적정 비료 사용량 안내

- 비료 적정 사용 실천 확산을 위해 농협 비료 판매 시스템과 표준 비료 사용 정보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은 비료 사용을 실제 필요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농촌진흥청의 표준 비료사용 정보*와 농협 비료 판매 시스템을 연계하여 5월 28일(목)부터 농가가 비료를 구매할 때 작물별·필지별 표준 비료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작물별 평균 양분 필요량에 따른 비료 사용량

농가들이 비료를 구매할 때 안내받는 내용이 구매량 등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 단계에서 적정사용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별 표준 비료사용 정보는 별도의 ‘휴토람’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나, 농협의 비료 판매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농가가 비료 구매 단계에서 적정사용량을 바로 확인하고 구매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과 농협간 시스템 연계로 농가는 비료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표준 비료사용 정보에 기반한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비료 적정 사용 실천 문화를 조성하여 농업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료 적정 사용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비료 판매 현장에서부터 적정 사용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무기질비료 사용량 절감과 농가 경영비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책임자 | 과 장 | 곽기형 (044-201-2431)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윤수 (044-201-2435) |